



선군정치 하(下) 군 엘리트(Elite) '파워(Power)' 고찰

이종철*

요 약

북한의 2009년 개정 헌법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동렬'에 명기하였다. 소위 '김정일 시대' 제기된 선군사상이 최상위 수준으로 위상이 강화된 것이다. 본 논문은 선군정치 하(下) 군부 위상 혹은 군 엘리트 파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그를 위해 구체적인 측정 지표를 설정하였다. 즉 국방위원회의 강화, 북한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의 군부 인사의 비율 변화, 주석단 서열 변화, 김정일의 당·군 책임일군 회의 횟수 및 변화 양태, 김정일의 군 현지도도 비율, 김정일 현지도도 시 군 인사(人事) 동행 비율, 김정일의 군 승진 인사(人事) 등의 지표를 통해 군부 위상 혹은 군 엘리트 파워의 변화 여부를 진단하였다. 다음으로 김정일 시대 부상한 '군 파워 엘리트'를 심층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 하 군 위상이 상승하고 군 엘리트 파워가 강화되었음을 논증한다.

주제어 군 엘리트 파워, 군 파워 엘리트, 선군정치, 군부 위상, 당·군 관계

41

선군정치 하(下) 군 엘리트(Elite) '파워(Power)' 고찰

*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연세대학교 강사

I. 서론

2009년 4월에 개정되어, 2009년 9월 한국 정부에 의해 공개된 북한의 헌법은 ‘선군사상’을 ‘주체사상’과 같은 위상에 놓는 중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북한의 2009년 개정 헌법(이하 2009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였다. 선군사상이 주체사상과 동렬의 위치에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은 소위 ‘김정일 시대’에 제기된 선군사상이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최상위의 수준으로 위상이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주장하듯이 선군정치가 시작되었다는 1995년 1월 1일로부터 치면 약 15년 만에 그 같은 위상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처럼 선군정치가 최상위 자리에 놓이기까지, 즉 북한의 권력자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시행해 오는 동안, 군을 앞세운다는 의미 그대로 군의 ‘위상’과 ‘파워(Power)’도 함께 상승하였을 것으로 흔히 추정한다. 선군정치 시기 군은 북한 체제의 가장 중요한 ‘핵’이 되었으며 북한 군과 군부의 위상이 그만큼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나아가 선군정치 하에서 군의 위상은 정말 상승하였을까 역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다면 현 단계 북한에서 군부 실세, 즉 군 ‘엘리트(Elite)’는 누구이며 그들의 영향력 혹은 파워는 선군정치 하에서 어떤 식으로 부상하고 강화되었을까 궁금증을 갖게 한다. 본 논문은 그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논문은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제기하고 펼쳐오는 동안 군 위상과 군부 위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를 통해 군 엘리트 파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북한 군, 북한 군부, 북한 군 엘리트의 위상 혹은 파워는 동일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본다. 즉 북한 군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은 북한 군부의 위상이 강화

되는 것과 결부되며 역시 북한 군 엘리트의 위상 강화로 귀결된다고 보는 것이다.

본 논문은 결론적으로 북한이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전개해 오는 동안 북한의 군 위상이 상승하였으며 군부의 위상 및 군 엘리트 파워 역시 강화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고 조명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 군부의 위상 강화가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면밀히 대입해 진단하겠다. 북한 권력의 구체적인 지표들을 동원, 북한 군부의 위상이 북한 권력 구도에서 실제 위상의 강화를 가져왔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둘째, 김정일 시대 북한의 핵심 군 엘리트를 추출하고 그들 중 원로세대를 제외한 인물들이 선군정치 과정에서 군부의 핵심은 물론 북한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자리잡은 현황을 분석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2장에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기존 연구의 현황에 대비, 본 연구의 방향을 밝히겠다. 3장에서 선군정치 하 군 엘리트의 파워 현황을 구체적인 지표들을 대입, 진단하겠다. 4장은 김정일 시대 북한의 핵심 군 파워 엘리트들을 살펴보겠다. 특히 5장의 결론을 빌어 연구 결과의 의미를 따로 비교적 풍부히 정리하겠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방향

1. 연구 주제의 핵심 개념

본 논문에서는 북한 군(The Armed Forces), 북한 군부(The Military), 북한 군 엘리트(Elite)라는 표현이 쓰일 것이다. 여기서 북한 군은 일반적인 군대를 총칭해 부르는 것이며, 북한 군부라고 할 때는 군의 지휘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그룹(Group)을 뜻하는 것이며, 북한 군 엘리트라고 할 때는 북한 군 부 중에서 구체적인 개개 핵심 인물에 초점을 맞춘 표현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밀스(C. Wright Mills)는 ‘엘리트’를 “한 사회의 중요한 지배적 제도 내에서 최고의 지위를 점유하여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¹⁾ 현성일에 따르면, ‘엘리트’의 의미에 대해 “반동적 부르주아 사회학설에서 ‘선발된 자’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엘리트론’과 관련해서도 “착취사회의 계급구조를 지도능력을 소유한 엘리트와 수동적 대중의 관계로 묘사하면서 엘리트에 의한 인민대중의 지배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제국주의 통치배들의 반동적인 사회학 이론”²⁾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사회주의 국가에는 지배계급으로서의 엘리트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엘리트가 출신과 사회적 배경에 따르는 계급적 신분인데 반해 사회주의 사회에서 ‘간부’는 국가정책에 따라 육성되고 선발되는 노동계급 출신의 지휘성원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³⁾ 그러나 북한에서도 엘리트의 개념에 합당한 사회계층은 분명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지도층에 합당한 북한의 어휘적 표현이 ‘간부’ 혹은 ‘민족 간부’이다. 북한은 간부의 의미에 대해 “당 및 국가기관, 사회단체 등의 일정한 책임적 지위에서 사업하는 핵심일꾼, 당의 골간 역량이며 당 정책을 조직 집행하는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대중의 교양자이다”⁴⁾라고 정의하고 있다.⁵⁾ 따라서 군 엘리트라고 했을 때는 군 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렇다면 ‘과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준래는 군부의 위상 강화는 기본적으로 외연의 확대에 연관된 양적 증대를 의미한다면 이 같은 위상

1) 밀스, 1979. 진덕규 역. 『과위엘리트』, p. 6; 현성일, 2007. 『북한의 국가전략과 과위엘리트-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p. 20.

2) 사회과학출판사, 1992. 『조선말대사전(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p. 1757; 현성일, 2007, pp. 18-19.

3) 현성일, 2007, pp. 18-19.

4) 사회과학출판사, 1992. 『조선말대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p. 64; 현성일, 2007, p. 19.

5) 현성일, 2007, p. 19.

강화가 체제 내 권력 구조에 내면화되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필수라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군의 당에 대한 충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군 간에 신분의 중첩성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⁶⁾ 따라서 군부의 위상 강화를 군 영역의 변화만으로 규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조준래는 군부의 영향력을 “외형적 수준에서 식별되는 군부의 위상과 역할의 변화가 체제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군부 비중의 구조적인 공고화로 전화(轉化)된 정도”로 규정한다.⁷⁾ 결국 군부 엘리트가 얼마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공고화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같이 구조화된 군 엘리트의 영향력을 ‘파워’로서 규정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와 연구의 방향

북한 연구에 있어 군부의 위상 변화와 관련된 문제는 우선 김정일 시대 당·정·군 관계의 변화와 연속성 속에서 다루어진 그 간의 연구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즉 그간의 연구들은 당·정·군 관계 속에서 북한의 선군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의미를 지니며 특히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와 같은 그 간의 연구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다.⁸⁾ 그것은 첫째, 북한에서 군을 중시하는 선군정치, 선군혁

6) Amos Perlmutter and William Leogrande, 1982, “The Party in Uniform: Toward a Theory of Civil-Military System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6(December 1982), pp. 778-779; 조준래, 2003, “「선군정치」와 북한군부의 영향력”, 『국방정책연구』 2003년 여름, p.86.

7) 조준래, 2003, p. 86.

8) 이에 대해서는 백학순의 분류를 기본으로 필자가 다른 선행연구들을 추가, 보완하였다. 아울러 김근식·이무철의 자료 해제와 연구 동향을 참조하였다. 백학순, 2007, “제 1장 당정군 관계”,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 서울: 한울아카데미; 김근식·이무철, 2007, “북한선군 정치와 강성대국론 - 자료 해제와 연구 동향 -”, 『통일문제연구』 2007년 하반기호(통권 제 48호).

명영도, 선군사상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어디까지나 당·정·군 3자의 위에 있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노동계급의 당이 여전히 정·군에 대해 영도와 지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⁹⁾ 둘째, 노동계급의 당이 여전히 정·군에 대해 당적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정·군 관계에서 양자가 분리되고 군의 위상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다는 주장이다.¹⁰⁾ 셋째, 기존의 수령 중심의 당국가 체계가 수평적인 당·정·군 역할 분담체제로 변화하였다는 주장이다.¹¹⁾ 넷째, 당·정·군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시스템에 의해 수령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수령 개인이 직접 당·정·군을 직할 통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¹²⁾ 다섯째, 선군정치로 군사국가 체제가 됨으로써 군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되어 기존의 당·정·군 관계가 역전되었거나 당과 군의 힘이 비등해졌거나 정·군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 약화되었다는 주장이다.¹³⁾

- 9) 정성장. “김정일의 ‘선군정치’ : 논리와 정책적 함의”. 『현대북한연구』 제4권 2호(2001); 정성장. 2003. “김정일 시대의 정치체제 특징 연구”(2003 정책연구과제). 통일부 정보분석국. 2003년 11월; 정성장. 200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선군정치’ 와 당·군 관계”. 『국가전략』 제 17권 3호; 정영태. 2006.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서울: 통일연구원; 이대근. 2003.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역할』. 서울: 한울; 정성임. 2004. “북한의 ‘선군정치’ 와 군의 역할”, 『국방연구』 제47권 제1호. 2004년 6월.
- 10) 정성장. 2001; 정성장. 2003.
- 11) 김갑식. 2005. 『김정일 정권의 권력 구조』.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 12) 김근식. 2002.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 관계 변화-수령제 변화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2호(2002년 여름호).
- 13) 서대숙. 2000. 『현대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와다하루키. 2002.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 서동만 외 옮김. 서울: 돌베개; 서동만. “북한 정치체제 변화에 관한 시론.” 한국정치학회. 『정치비평』 가을겨울호(1998); 김성철. 1997. “김정일 시대의 정책전망: 위기 속의 정치체제 변용과 전망.” 『통일경제』. 1997년 9월호; 김성철. 1997.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이상민. 2000.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조선노동당의 위상”. 이상민 외. 『21세기의 남북한 정치-새로운 남북관계와 통일한국의 미래』. 서울: 한울; 김구섭·서주석·고성윤. 1997. 『북한군부의 위상과 대내외 정책전망』. 서울: 국방연구원; 김용현. 2006. “한군사국가회의의 기원”. 북한연구학회 엮음. 『북한의 정치』 2(북한학총서). 서울: 경인문화사; 이종석. 2000. “김정일 시대의 조선노동당: 위상·조직·기능”; 이종석·백학순. 『김정일 시대의 당과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백승주. 2001. “선군정치하 북한군 역할과 위상 변화”. 『국방정책연구』

이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그 중에서도,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 혹은 군부를 서로 결부시켜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로는 정성장,¹⁴⁾ 백승주,¹⁵⁾ 정성임,¹⁶⁾ 이대근,¹⁷⁾ 조준래¹⁸⁾이다.

정성장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군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의 군사권력기반이 취약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당면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군대가 당과 함께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김정일 시대에 와서 기존의 당·군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군에 대한 당의 통제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 군대가 당의 우위에 서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1998년의 헌법 개정을 통해 발생한 변화는 당·군 관계에서가 아니라 군·정 관계에서였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백승주는, 선군정치론 발표의 배경과 내용, 군 역할과 위상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백승주는 북한에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변화를 평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면서 일반적으로 북한군의 정치적 위상 증가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로서 세 가지 정도의 변수가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첫째, 현역 군 인사가 북한 통치기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 군부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통치기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하락하면 군부의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¹⁹⁾ 둘째, 북한의 주요 행사에서 발표되는 권력서열에서 차지하는 주요 군 인사의 서열 변화 셋째, 최고지도자의 공개활동의 대상이 되는 기관들 중에서 군 기관이 차지하는 비율 등이 대체로 군의 영향력 증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설명

2001년 겨울.

14) 정성장. 2001.

15) 백승주. 2001.

16) 정성임. 2004.

17) 이대근. 2003.

18) 조준래. 2003.

19) 백승주에 따르면, 고려되는 통치기구로서 북한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나 노동당 중앙기구로서 당중앙위원회 등을 꼽는다.

한다. 그러면서 백승주는 김정일 정권이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형성 및 강화해 가는 과정에서 군 및 군 엘리트의 위상도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다.²⁰⁾

정성임은, 강성대국론의 대두와 함께 선군정치를 조명하며 선군정치 하 군의 위상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선군정치 하에서 군의 위상은 당적 지도를 받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변화하지 않았으며,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군의 역할 부분임을 제시한다. 북한 체제의 근간은 당이며 이러한 당의 지위는 쉽게 포기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대근은, 김정일 시대에 와서 북한 군대의 상징적 역할을 크게 증대하였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함께 증가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김정일 시대에 와서도 통제 메카니즘으로서의 당은 정상 작동되고 있고 따라서 당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하는 당-국가 체제는 악화되거나 근본적인 변화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조준래는, 선군정치의 대두 배경과 북한군의 영향력 변화 여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군의 역할의 외연(外延)은 확대된 것으로 평가되나, 수령유일지도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현실에서 정책결정, 특히 대남 정책결정에 있어서 군의 영향력은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당·군 관계는 당 우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에도 당과 군에 대한 대우와 배려에 관한 귀결적 선택이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의 개인적 선호와 판단에 전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수령유일지도 체제의 틀 내에서 조건지위되며 해석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글의 독자적인 논지로 선군정치라는 위기관리체제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비상상황이나 계기적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정책결정에 “양적 우위의 압력(quantitative predominance

20) 물론 백승주는 “오히려 체제유지 과정에서 이러한 군 인사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이 선군정치론으로 설명되는 측면이 많다. 즉 군 인사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과 선군정치론과의 인관관계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선군정치론을 발표한 시점을 전후하여 군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

pressure)”이 표출되면서 북한 군부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게 된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북측이 수시로 언급하는 “북한 군부의 반대”에는 협상전술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 군의 위상, 북한 군 엘리트 파워의 증가를 평가하기 위해 앞서 백승주의 논문이 제시하는 세 가지 변수들을 바탕으로,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한다. 즉 북한 헌법의 변화에서 보이는 국방위원회의 강화, 북한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의 군부 인사의 비율 변화, 주석단 서열 변화, 김정일의 당·군 책임일군 회의 횟수 및 변화 양태, 김정일의 군 현지도 비율, 김정일 현지도 시 군 인사(人事) 동행 비율, 김정일의 군 승진 인사(人事)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같은 지표에 대한 통계화는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선군정치의 기점으로 삼는 1995년부터 2009개정헌법을 통해 선군사상이 주체사상과 동렬에 놓이며 선군정치의 위상이 최상위 수준으로 강화된 2009년 시점까지로 할 것이며²¹⁾ 사안에 따라 김정일이 최고사령관에 오른 1992년 시점 및 최근 2010년까지 확대될 수 있다. 본 논문과 가장 유사한 문제의식으로 씌어진 논문은 조준래의 것이다. 그러나 지표에 있어 중요 지표를 다수 추가하고 기간을 확대하며 통계의 내용을 연도별로 심층 해부해 드러내고 있는 점, 최근 핵심 군부 실세들을 추출·분석하고 있는 점 등에 있어 본 연구가 기존 연구를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선군정치 하(下) 군 엘리트 ‘파워(Power)’

김정일이 군을 앞세운 선군정치를 제기하고 강화해 오는 과정에서 구체

21) 자료 조사의 한계로, 김정일이 당·군 책임일군들과 가진 회의 양태는 2005년까지 보았다.

적인 군 및 군부 위상의 변화, 즉 군 엘리트의 파워(Power) 변화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가? 본 장에서는 구체적인 진단을 위해 다음의 기준을 적용해 살펴보겠다. 즉 북한 헌법의 변화에서 보이는 국방위원회의 강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의 군부 인사의 비율 변화, 주석단 서열 변화, 김정일의 당·군 책임일군 회의 횟수 및 변화 양태, 김정일의 군 현지지도 비율, 김정일 현지지도 시·군 인사 동행 비율, 김정일의 군 승진 인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북한 정권은 선군정치의 완성 단계이자 제도화 단계로서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1992년 사회주의 헌법에서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규정되었으나, 1998년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인 국방관리기관으로 규정되면서 위상과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2009년의 헌법 개정에서는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 규정되었으며 다방면에서 권한이 독보적 위치에 올려졌음을 볼 수 있다.

1998년 헌법 개정 당시, 북한 정권은 국방위원회 위상과 관련 최고군사지도기관에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의 역할을 추가하면서 일체의 무력에 대한 지휘 통솔권과 군수공업 등 국방사업전반에 대한 조직지도권을 행사하도록 법적 위상을 높였다.²²⁾ 국방위원회의 구성원도 5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국방위원장의 권한도 일체의 무력 지휘 통솔권에 국가의 국방사업전반에 대한 지도권이 추가되면서 확대되었다.²³⁾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방위원장의 직책에 대해 “나라의 정치군사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국방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영도하는 국가

22) 1992년 사회주의헌법에서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기관으로 규정되었으나, 1998년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관리기관으로 규정되면서 위상과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23) 오경섭, 2009. “북한의 위기관리동학에 관한 연구: 선군정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pp. 142-143.

의 최고직책이며 우리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성스러운 중책”이라고 밝혔다.²⁴⁾ 국방위원장이 국가의 최고직책으로 규정됨으로써 선군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국방위원회의 역할은 군사국방부문에 한정된 것이었고, 정책 결정 기능보다는 집체적 협의회 기능을 수행했다.²⁵⁾

그것이 2009년 헌법 개정에 이르러서는 국방위원장의 절을 새로이 신설함으로써 헌법상의 지위를 격상시켰고, 국방위원장을 북한 최고 지도자이며 군사적 최고 지도자로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방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따로 신설하여 제도화하였다. 첫째, 제도로써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신헌법은 국방위원장의 절을 새로 신설하고 헌법상의 지위를 격상시켰다. 국방위원장은 헌법상의 북한의 최고지도자이며 군사적 최고지도자로 규정했다.²⁶⁾

아울러 국방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을 명확하게 했다.²⁷⁾ 둘째,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임무를 제도화시켰다.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 규정하고(2009헌법 제106조), 구성방법(2009헌법 107조), 임기(제108조)를 명확하게 하였다. 아울러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임무에 대해서도 분

24) 1998, 『로동신문』 (9월 7일); 오경섭, 2009, p. 143.

25) 고재홍, 2008, “북한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향후 북한의 권력구도 전망”, 『한반도, 전환기의 사색』, 2008년 북한연구학회 통일연구원 고려대북한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p. 223; 오경섭, 2009, p. 144.

26) 2009북한헌법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27) 2009북한헌법 제103조는 다음의 조항을 지녔다.

- ①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 ② 국방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 ③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 ④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⑤ 특사권을 행사한다.
- ⑥ 나라의 비상상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명하게 규정하였다.²⁸⁾

다음으로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군부가 차지하는 비율을 추적해 보면 그 변화의 폭을 볼 수 있다. 제9기에서는 전체 687명

〈표 1〉 국방위원회 관련 헌법 조항 수정·보충 내용 비교·분석

항목	1992년 사회주의 헌법	1998년 사회주의 헌법	2009년 사회주의 헌법
위상	최고군사지도기관	최고군사지도기관, 전반적 국방관리기관	최고국방지도기관
구성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임기	5년(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동일)		
위원장 권한	일체 무력지휘통솔	일체 무력지휘통솔, 국방사업 전반 지도	위원장 조항을 따로 신설(제2절)
임무와 권한	없음	없음	선군혁명로선 관철위한 국가의 중요정책 세움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지도		
	없음	없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움
	없음	없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함
	없음	국방부문 중앙기관 내오거나 없앴	
	군사칭호 제정, 정령 이상의 군사칭호 수여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		없음
결정과 명령(2009년 '결정과 지시'로 개정) 발효	있음(공화국 내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집행)		
사업에 대한 책임	최고인민회의의 앞에 책임을 짐		

28) 2009북한헌법 제109조는 다음의 조항을 지녔다.

- ①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 ②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 ③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집행행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④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⑤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 ⑥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가운데 9%에 해당하는 62명이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볼 수 있다. 제10기에서는 1.7배 증가한 687명 중 107명으로 전체 대의원의 15.6%가 군부 인사였다. 제11기에는 36%가 감소한 68명이 선출되었는데 이는 혁명 3세대가 20명 정도 탈락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혁명 3세대는 아직 정치적 기반이 공고하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기도 하였다. 1998년 7월 제10기 대의원선거는 1990년 4월 제9기 대의원 선거 이후 8년 3개월여 만에 치르는 것이었는데 선군정치가 본격화된 시기로서 9기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북한은 2009년 3월 8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렀다. 12기 선거에서는 전체 687명 중 316명이 새로 선출되어 46%가 교체되었다.²⁹⁾ 출신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아 군부 비율을 정확히 잡을 수는 없으나, '선군정치'에 걸맞게 군부 인사들은 거의 당선된 것으로 파악된다.³⁰⁾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부장을 필두로 리을설·리종산 차수 등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명국 인민무력부 작전국장, 김원홍 군보위사령관 등이 지위를 유지하였고, 김영철 국방위 정책실장, 리정부 포병사령관, 황강철 강건종합군관학교장 등이 새로 선출되었다. 안민환 중장을 비롯한 4명 및 리태섭 소장을 비롯한 14명 등의 신진 군장성들이 등용되었다.³¹⁾ 김두남 금수산기념궁전 관장(대장), 김상의 인민무력부 부부장(소장) 등도 새로 진입하였다. 다만, 당중앙군사위원인 박기서 및 김명국, 군단장인 김성규 전재선 주상성 등과 함께 인민군 보위국장 원웅희 등의 군부 핵심이 탈락하였다.³²⁾

다음으로 북한 주석단의 서열 변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북한 주석단

29 1998년 실시된 제10기 대의원 선거에서는 제9기 대의원 중 64%가 탈락하였고, 2003년에 실시된 제11기 선거에서는 제10기 대의원 687명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343명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었다.

30) 전현준. 2009.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통일정세분석』 2009-4.

31) 전현준. 2009. p. 14.

32) 전현준. 2009. p. 3.

서열은 선군정치 표방 이후 큰 폭은 아니지만 군부 인사들의 약진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1994년 9월 16일 김일성 사망 100일 중앙추모회 주석단과 김일성 2주기 중앙추모대회에는 군 출신으로 서열 20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5명 이하였으나, 1998년 이후 김정일이 참석한 주석단 서열에는 군 출신 인사가 8명 이상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1994년 9월 16일 김일성 사망 100일 중앙추모회에서부터 1997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 65주년 열병식에서의 주석단 서열에서 군인의 분포 비율은 평균 28%를 차지하였고, 1998년 9월 5일부터 2003년 3월 26일까지의 최고인민회의 각 회의 주석단 서열에서는 군인 출신의 분포비율이 45%를 차지하였다. 이 같은 변화는 군부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 역사상 1965년 이후 선군정치 이전 1994년까지 주석단 내 군부 인사의 구성비를 종합해 보면 평균 19.8%로 집계된다.³³⁾ 이 같은 비율이 선군정치를 거치며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김일성 사망 10돌 추모식에서는 32명 중 10명, 2005년 당 창건 60돌 경축식에서는 21명 중 4명, 2006년 김정일 생일 64돌 경축식에서는 17명 중 4명, 2007년 인민군 창건 75돌 열병식에서는 19명 중 5명,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5돌 경축식에서는 17명 중 5명, 2009년 김일성 사망 15돌 추모식에서는 23명 중 7명이 현역 군장령 출신의 군 인사이다. 같은 행사의 상위 10위권만을 보면, 2004년 4명, 2005년 4명, 2006년 4명, 2007년 5명, 2008년 5명, 2009년 4명으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선군정치가 형성되고 제도화되던 시기에, 김정일이 당이나 군의 책임일군들과 가진 회의 횟수나 변화 양태를 분석해 보면 김정일이 군에 대해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는지 군의 파워엘리트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경섭의 분석에 따르면, 김정

33) NK조선 웹사이트, 『주석단서열』; 북한연구소, 2003, 『북한총람(1993-2002)』, 서울: 북한연구소; 통일부, 『북한주요동향』 자료 종합. 1965년 이후 5년 단위 주석단 내 군 인사 비율을 추적해 보면, 1965-1970은 27.7%, 1971-1976은 23.4%, 1977-1982는 21.4%, 1983-1994는 10.4%로 나타나고 있다.

일이 1990년 이후 2005년까지 당이나 군과 진행한 회의 횟수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115회,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69회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일은 1990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많은 수의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북한의 위기가 고조되던 시기 군 책임일군들과 가진 회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1994년 제1차 북핵위기가 전쟁 직전 상황으로 악화되고 김일성 사망으로 인해 위기가 고조되면서 군 책임일군들과의 회의가 빈번하게 진행되었다. 김정일은 당과 12회, 군과 10회의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기근과 경제의 붕괴 등 국가의 총체적 위기가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던 1996년에는 당 13회, 군 13회였고 1997년에는 당 3회, 군 5회였다. 1996~1997년까지는 회의 횟수가 당과 군이 비슷했고, 최악의 위기를 벗어난 2000년 이후에는 당과 진행한 회의 횟수가 군과 진행한 회의 횟수보다 훨씬 많았다. 이 같은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먼저 김정일이 1990년대 당과의 회의 횟수에 비해 군과의 회의 횟수에 꾸준히 높은 비중을 두었으며 둘째, 2000년 이후에는 당과의 회의 횟수가 군과의 회의 횟수를 훨씬 상회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위기 상황에서 김정일이 군을 중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³⁴⁾

다음으로 김정일의 공개 활동, 즉 현지도 상황을 통해 군의 위상 변화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오경섭에 따르면, 김정일은 정책적으로 군우대 정책과 군중시 정책을 실행했고, 일선 군부대에 대한 현지도를 진행함으로써 군인들과의 일체감을 형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김정일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1995년 이후 2000년대에 걸쳐 매년 전체 공개 활동 중에서 40~70% 정도를 군 현지도에 할애했다.³⁵⁾

다음으로 김정일의 공개 활동 시 수행한 수행자, 즉 누가 김정일을 수행하였는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북한에서 김정일의 현지도는 어떤 정

34) 오경섭. 2009. pp. 151-155.

35) 오경섭. 2009. p. 190.

〈표 2〉 김정일 군 현지도 상황(1995~2009년)

연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공개 활동 횟수	35	52	57	70	69	73	83	99	92	92	131	99	86	95	158
군 현지도	20	37	40	49	41	21	39	38	63	60	70	66	41	51	44
비율(%)	57.1	71.2	70.2	70.0	59.4	28.8	47.0	38.4	68.5	65.2	53.4	66.7	48	53.7	27.8

출처 : 오경섭, 2009; 통일연구원, 2009, 『1994~2008 김정일 현지도 동향』, 서울: 통일연구원; 통일부, 『북한주요동향』 자료 종합.

책적 지침보다 중요하며 실제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 김정일은 현지도를 통해 실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과업’ 상의 중대한 의미 부여를 하였다. 김정일의 선군정치 시작 시점을 김정일이 1995년 1월 1일 다박출중대를 현지도 한 것에 뿌리를 두고 선전을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의 현지도에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동시에 김정일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로 생각한다는 것을 방증해 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김정일의 현지도에 특정 인물의 수행 빈도가 높다면 그에 비례해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표 3〉과 〈표 4〉는 김정일의 선군정치 시작 시기인 1995년부터 2009년까지 김정일의 현지도를 수행하였던 인물들로 상위 15위 이내를 통계화 한 것이다. 표에서 보다시피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60%까지 현역 장령 출신의 군부 인사가 김정일의 현지도를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김정일의 현지도 비중으로서 군에 대한 현지도가 높게 차지함을 보았지만, 김정일이 군부대를 방문하더라도 민간인 출신의 요직의 인물을 대동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군부 인사가 상위 15위권의 50% 이상의 비율로 동행한다는 것은 김정일이 주요 군부 인사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김정일이 단행한 군 승진 인사의 규모를 가지고도 군의 위상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은 1992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취임한 후 군 상층부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대규모의 군 장성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김정일은 아래 표와 같이 18년 동안 20차례

〈표 3〉 김정일 현지도도 시 수행인물 순위(1995년~2000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		최광	박재경	김영춘	현철해	현철해	김국태
2		김기남		조명록	박재경	박재경	김용순
3		김광진	현철해	김기남	조명록	조명록	김영춘
4		계웅태	계웅태	현철해	김하규	김영춘	조명록
5		이을설	김기남	김용순	김영춘	김국태	김일철
6		김국태	김하규	박재경	김국태	장성택	박재경
7		백학림	최태복	김국태	김기남	이용무	현철해
8		이하일	김용순	계웅태	김용순 장성택	김용순 김일철 이용철	장성택
9		김명국 전병호 최태복	김국태	최태복			박송봉
10			김영춘	김하규	이용철		
11			이하일	이용철	이명수	김기남 박송봉 이명수	이명수 최태복
12		박재경	김명국	최용해	김일철		이용무
13		이봉원	최용해	김일철	계웅태		연형목
14		조명록	이을설		박송봉	최춘황	김영남
15		김영남 김용순 박성철 한성룡	최광		이명수 이하일	이용무	박기서
군부인사 비율	수	10(9)/18	9/15	9(8)/16	9(8)	9(8)	8(7)
	비율(%)	56(50)	60	56(50)	60(53)	60(53)	53(47)

〈표 4〉 김정일 현지도도 시 수행인물 순위(2001년~2009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	현철해	김국태	현철해	현철해	박재경	박재경	현철해	현철해	김기남
2	박재경	김기남	박재경	박재경	이명수	이명수	김기남	이명수	장성택
3	김국태	정하철	이명수	이명수	현철해	현철해	이명수	김기남	박남기
4	이용철	현철해	김영춘	이용철	박봉주	황병서	박남기	장성택	현철해
5	장성택	김용순	김기남	김영춘	김기남	이재일	김일철	김명국	이명수
6	이명수	박재경	이용철	김기남	황병서	이용철	이용철	김정각	김영춘
7	정하철	이용철	김국태	김국태	김일철	김기남	이재일	박남기	김정각
8	김영춘	장성택	김용순	강석주	이재일	김영춘	김격식	박도춘	최태복
9	주규창	김영춘	최춘황	연형목	최태복	이제강	최태복	김격식	이영호
10	김일철	이명수	김일철	박봉주	김국태	장성택	홍석형	이재일	강석주
11	김기남	김일철	장성택	김일철	김영춘	김일철	김영일	이제강	이재일
12	최태복	조명록	강석주	정하철	이용철	박남기	강석주	강석주	이제강
13	조명록	강석주	이제강	박남기	강석주	최태복	양형섭	김양건	김경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4	연형목	최태복	연형목	최태복	연형목	박봉주	김영남	주규창	김명국	
15	강석주	주규창	조명록	김경호	김영남	강석주	김국태 김정각 김중린 최영림 홍성남 황병서	김평해		
군부 인사 비율	수 비율 (%)	60(40)	8(7)	8(6)	7(5)	8(5)	7(5)	7(5)/20	6(5)	6
		60(40)	53(47)	53(40)	47(33)	53(33)	47(33)	35(25)	40(33)	40

* 표 3과 표 4에서, 전병호(국방위원회 위원), 이용철(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연형목(국방위원회 위원), 주규창(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황병서(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 군사담당) 등은 민간인 출신 군 관계자로서 군 인사 통계에 우선 포함시켰다. 그러나 그럴 경우 그들을 제외한 순수한 현역 장령들만을 통계화 해 괄호로 따로 묶어 옆에 표기하였다.

* 고덕부각 명단이 군 인사

출처 : 통일연구원, 2009, 『1994~2008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서울: 통일연구원; 통일부, 『북한주요동향』 자료 종합.

에 걸쳐 1,434명의 군 장성 승진인사를 실시했다. 김정일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오른 1992년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한 번에 664명을 승진시켰으며, 소위 5년 10년 단위의 꺾어지는 해를 기념하는 1997년 김일성의 85회 생일에는 123명을 승진시켰다. 2002년 김일성의 90회 생일에는 55명, 2007년 김일성의 95회생일에도 55명을 승진시켰다. 근래 2008년 4월 김일성의 96회 생일을 맞아서는 김원홍 인민군 보위사령관을 대장으로 승진시키고, 54명의 군 장성에 승진인사를 단행하였다. 2009년 4월에는 대장과 상장 승진자는 없이 강국종 등 2명을 중장으로, 최광준 등 33명을 소장으로 승진시켰다. 김정일은 2010년 들어 4월 14일 김일성 98회 생일을 맞아서는 대장 4명을 포함해 군 장성 100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하였다. 2010년 승진인사의 규모는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본격적으로 표방하던 1997년 129명의 승진인사를 단행한 이후 최대 규모이다.³⁶⁾ 대장 승진자는 우동측 국가안전

36) 조선인민군 지휘 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 데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 제0045호에 따른

보위부 수석부부장 겸 국방위원, 리병철 공군사령관, 정명도 해군사령관, 정호균 전 포병사령관 등 4명인데 특히 우동측은 2009년 4월 상장으로 승진한 후 다시 1년 만에 대장에 올랐는데 김정일 체제의 새로운 실세로 부각되고 있다.³⁷⁾

종합하면, 김정일 정권이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수행해 오는 동안 군 및 군부의 위상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군 엘리트의 '파워'도 증가하였음을 확

〈표 5〉 군 장성 승진인사(1992~2009)³⁸⁾

일시	형식	승진인원(명)
인민군창건 60주년(1992. 4. 20)	당중앙위·당중앙군사위·국방위 · 중앙인민위 결정	10
인민군창건 60주년(1992. 4. 23)	최고사령관 명령 제0024호	664
휴전협정 40주년(1993. 7. 19)	최고사령관 명령 제0024호	99
김일성 82회생일(1994. 4)	당중앙위·당중앙군사위·국방위 · 중앙인민위 결정	1
당 창건 50주년(1995. 10. 8)	당중앙위·국방위 결정	5
	최고사령관 명령 제0065호	14
김정일 55회생일(1997. 2. 9)	최고사령관 명령 제0087호	6
김일성 85회생일(1997. 4. 13)	최고사령관 명령 제0088호	123
김일성 86회생일(1998. 9. 8)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02호	22
정권수립 50주년(1998. 9. 8)	당중앙위·국방위 결정	2
김일성 87회생일(1999. 4. 13)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14호	79
당창건 55주년(2000. 10. 4)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33호	44
김일성 89회생일(2001. 4. 13)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40호	19
김일성 90회생일(2002. 4. 13)	당중앙위·국방위 결정	1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52호	54
정전협정 조인 50주년 기념 (2003. 7. 26)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60호	24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생일이나 노동당 창당일 등 기념일에, '차수'나 '원수'는 당중앙위와 국방위원회 '결정'으로, 대장급 이하 군 장성은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군 장성 승진 인사를 실시한다.

37) 김성진. 2010. "北, 軍장성 100명 승진인사..97년 이후 최대." 『연합뉴스』 (4월 14일).

38) 김정일은 1991년 12월 24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오른다. 이후 김정일은 1996년을 제외한 매년,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군 승진인사를 단행한다.

일시	형식	승진인원(명)
김일성 92회생일(2004. 4. 14)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65호	73
김일성 93회생일(2005. 4. 14)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72호	34
김일성 94회생일(2006. 4. 14)	최고사령관 명령 제004호	37
김일성 95회생일(2007. 4. 14)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0호	55
김일성 96회생일(2008. 4. 15)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9호	35
김일성 97회생일(2009. 4. 14)	최고사령관 명령 제0021호	33
합계	20회	1,434

출처 : 오경섭, 2009;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92~2008년); 통일부, 『북한주요동향』 자료 종합.

인할 수 있다. 주요 기준에 따라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1998년 헌법과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크게 강화되었다. 1998년 헌법에서 국방위원회는 국가 최고 통치기구가 되었으며 2009년 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둘째,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군 인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선군정치가 본격화되던 1998년 제10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서 군 인사의 비중이 107명으로 제9기 때 62명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셋째, 북한의 주요행사 주석단의 군 인사 숫자가 증가하고 서열이 점차 상향되어 갔다. 넷째, 김정일은 1990년대 군 엘리트와의 회의 수를 점점 늘려갔다. 특히 1994년 제 1차 북핵위기처럼 북한의 위기가 고조되던 시기 군 책임일군들과 가진 회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김정일이 1990년대 당과의 회의 횟수에 비해 군과의 회의 횟수에 꾸준히 높은 비중을 두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당과의 회의 횟수가 군과의 회의 횟수를 훨씬 상회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위기 상황에서 김정일이 군을 중시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김정일은 1995년 이후에 매년 전체 공개 활동 중에서 40~70% 정도를 군 현지 지도에 할애했다. 여섯째, 1995년부터 2009년까지 김정일의 현지지도를 수행하였던 인물들로 상위 15위 이내를 보면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60%까지 현역 장령 출신의 군부 인사가 김정일의 현지지

도를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정일이 주요 군부 인사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일곱째, 1992년 조선인민군 사령관에 취임한 후, 김정일은 군 상층부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대규모의 군 장성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IV. 북한 핵심 군 파워 엘리트

밀스는 '파워 엘리트(The Power Elite)' 를 “사회조직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 조직사회의 각종 의사결정 및 집행을 담당하는 권력집단”으로 규정하였다.³⁹⁾ 그렇다면 북한에서의 군 파워 엘리트는 누구인가? 백승주는 2009년 10월 현재 북한의 주요 군부 엘리트 26명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군사위원회 위원 중 장령(7명), 국방위원회 위원 중 장령(8명), 인민무력부 부장 및 부부장(8명), 총참모장 및 작전국장(2명), 총정치국 국장 및 부국장(8명), 호위사령관(1명), 평양방어사령관, 보위사령관(1명)으로 분류된다.

〈표 6〉 북한 핵심 군 파워 엘리트 26명

군사기구	위원 및 보직자	
당 중앙군사위원회(7명)	장령	이을철, 조명록('10년 11월 사망)*, 김영춘*, 이하일, 김일철*, 박기서, 김명국*, 김두남('09년 2월 사망)*
	민간인	이용철
국방위원회(8명)	장령	조명록, 김영춘, 이용무, 오극렬, 김일철, 백세봉, 주상성, 김정각
	민간인	전병호, 장성택, 우동측, 주규창
인민무력부(7명)	김영춘, 김일철, 박재경, 이태일, 정창렬, 김상익, 손삼술	
총참모부(2명)	이영호, 김명국	
총정치국(8명)	조명록, 김정각, 현철해, 김기선, 심상대, 이이준, 전기련, 정태근	

39) C. Wright Mills, 1956. *The Power Elite*, Oxford University Press, pp. 3-46.

군사기구	위원 및 보직자
호위사령관(1명)	윤정린
보위사령관(1명)	김원홍

* 표시는 겸직자.

출처 : 백승주, 2009, “주요 북한군부 엘리트의 집단별 특징 및 정치배경 분석”, 제3회 북한군사포럼 발표문.

백승주는 이들을 세 가지 범주를 가지고 재구분하였다. 첫째, 당 출신이면서 군사기관 인사 둘째, 군 출신이면서 국가·당 인사 셋째, 군사 기구 인사들로, <표 7>과 같이 그들 중 군 출신이면서 국가·당 인사들이 제도적 차원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고 규정한다. 즉 이들이 현재 북한을 움직이는 핵심 군부 엘리트들인 것이다. 이들의 면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선군정치 시기 성장하였음을 볼 수 있다.

<표 7> 출신 및 겸직을 고려한 군부 인사 범주

당 출신 군사기관 인사(5명)	군출신 국가·당인사(12명)	군사기관의 중요장령(19명)
이용철, 전병호, 장성택, 우동측, 주규창	이을설, 조명록, 김영춘, 이하일, 김일철, 박기서, 김명국, 이용무, 오극렬, 백세봉, 주상성, 김정각	김영춘*, 김일철*, 박재경, 이태일, 정창렬, 김상익, 손삼술, 이영호, 김명국*, 조명록*, 김정각*, 현철해, 김기선, 심상대, 이이준, 전기련, 정태근, 윤정린, 김원홍

* 표시는 겸직자.

출처 : 백승주, 2009.

이들 중 이을설 호위사령관과 조명록 총정치국장은 혁명 1세대 군 원로들로서 김정일 시대에도 지위를 유지하였는데, 이을설은 선군정치가 시작 시점인 1995년 김정일 현지도에 군 인사로는 가장 많은 동행을 하였고, 조명록은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현지도 동행 순위 상위권에서 김정일의 옆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세대의 이용무, 2세대에 속하는 이하일

과 박기서 역시 김정일 시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을 유지하였다. 특히 주목할 인물들은 김영춘, 김일철, 김명국, 백세봉, 주상성, 김정각 등이다. 또한 군사 기관의 중요 장령들 중에서는 박재경과 현철해가 두드러진다.

김영춘은 1995년 10월 인민군 차수로 승진하여 총참모장이 되었으며, 2003년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부상하였고, 2009년에 인민부력부장을 맡았다. 김일철은 1998년에 인민부력부장에 올랐으며, 최고인민회의 10기에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었고, 11기, 12기에 걸쳐 위원으로 위촉되고 있다. 주석단 서열을 보면 1996년 김일성 사망 2주기 추모식에서 김영춘(12위)의 이름이 올라왔고, 1997년 김일성 사망 3주기 추모식(3년 탈상)에서 김일철(30위)이 등장하는데, 김영춘과 김일철은 2000년 이후 매년 10위권 안으로 배치가 되고 있다.

김명국은 1995년 당 원로들이 포진한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위촉되었으며, 1994년에 보임한 작전국장을 유지하면서 전시 군사지휘분야에 핵심보직을 차지하여 남북한 긴장국면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⁴⁰⁾ 김명국은 2006년까지 보이지 않다가 2007년에 이르러 김정일 현지도도 수행인물 순위 27위로 부상하더니 2008년에는 다섯 번째로 김정일의 현지도도를 빈번하게 수행한 인물이 되었다. 백세봉은 2003년에 제2경제위원장에 올랐으며 동시에 국방위원에 임명되었다. 백세봉의 경우는 임명되기 전에는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로서 백세봉이 국방위원에 임명되자 한국에서는 그것이 북한의 후계 문제와 관련된 것 아닌가 하는 논쟁을 촉발하였다.⁴¹⁾ 인민보안상인 주상성은 2004년 인민보안상에 올라 2009년 국방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김정각은 2008년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이 되었으며 2009년에는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부상하였다. 앞서 김명국의 경우

40) 백승주, 2009, p. 24.

41) 백승주, 2009, pp. 24-25. 백세봉은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처럼 김정각 역시 2006년까지 보이지 않다가 2007년에 이르러 김정일의 현지도에 동행해 15번째로 빈도가 많은 인물이 되었으며 2008년에는 6위, 2009년에는 7위를 차지하는 등 급속도로 주목할 인물로 부상하였다. 박재경은 1994년에 보임한 총정치국 부국장 지위를 유지하면서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군을 대표하는 간부로 성장했다. 박재경은 북한이 선군정치 시작 시점으로 선전하는 1995년 이후 김정일 현지도에서 1995년 12위를 제외하고는 5위 안의 상위를 지키고 있다. 다만 2007년 36위로 급격히 하락하더니 2008년에는 김정일의 현지도에 한 번도 동행하지 않았다. 현철해 역시 박재경과 마찬가지로 선군정치 시기 내내 김정일을 가까이에서 동행하고 있는데 1998년, 1999년, 2001년, 2003~2008년 계속 김정일 현지도 동행 빈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9년에도 4위를 차지하는 등 김정일의 가장 두터운 신임을 유지하는 인물로 주목된다. 현철해는 1995년 인민군 대장으로 승진하여 총정치국 부국장의 보직을 맡았으며 현재까지 지속해 오고 있다.

정성장은 2008년 북한의 핵심 파워 엘리트 26인을 선정하였다.⁴²⁾ 정성장은 북한의 5대 군력 기관인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에의 소속 유무를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하고 주석단 서열, 김정일 현지도 수행 빈도 등을 기준으로 김정일을 제외한 북한의 권력 실세를 파악하였다. 그 중 군부 인물은 현철해, 이명수, 김일철, 이하일, 김영춘, 김격식, 김정각, 강동윤 등 8명을 거명하였다. 거기에 민간인 출신의 군 인사인 이용철, 전병호, 황병서를 합치면 11명이 핵심 파워 엘리트가 된다.

선군정치 하 군부의 약진과 당의 후퇴를 통해 보다 뚜렷하게 군 엘리트의 파워 증대와 새로운 군 엘리트들을 파악할 수 있다. 선군정치 하에서 체

42) 김명국·정성장. 2008. “누가 북한을 움직이는가.” 『시사저널』 992호 (10월 22일).

제 수호 세력으로서 군부 측근 엘리트들의 강세가 현저하게 증가함으로써, 권력엘리트의 충원에서 당 출신 엘리트들은 정체된 반면 군 출신 엘리트들의 충원은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본디 당 관료들이 맡았던 당의 핵심 요직인 조직지도부와 사회통제 기구로서 막강한 권력을 지닌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등에 군 출신 엘리트들이 새롭게 충원되거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⁴³⁾

김일성 사망 당시 1994년 서열 50위의 권력 그룹에서 당 정치국을 거친 인물은 50명 중 29명이었지만, 2006년에는 김정일을 제외하고 당 정치국 출신이 7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⁴⁴⁾ 당 출신 엘리트들의 위축과 대조적으로 군 출신 엘리트들의 약진은 두드러졌다. 당 서열 50위의 권력 그룹 중 현역 군인들의 수가 1994년 5명에서 2006년 당시 12명으로 급증했다.⁴⁵⁾ 군 경력을 가진 인물들의 수는 1994년에는 21명에서 2006년 33명으로 늘어났다.⁴⁶⁾

다음으로 당의 핵심기구인 조직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 및 인민보안성과 같은 권력기구에 군 엘리트 출신들이 약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05년 5월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발탁된 황병서는 총정치국 출신이며, 역시 2007년 1월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임명된 강동윤은 인민군 상장으로 425기계화사단 군단장 출신이다. 1987년 2대 보위부장 이진수가 사망한 후 공석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는 현재 우동측 수석부부장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우동측은 2009년 인민군 상장으로 승진 후 2010년 1년 만에 대장에 오르는 등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실세

43) 이승열. 2009. 『김정일의 선택』. 서울: 시대정신. p. 160.

44) 김정일과 함께 김영남, 전병호, 한성룡, 최태복, 양형섭, 홍석형, 홍성남 등이다. 이승열. 2009. pp. 160-161.

45) 조명록, 김일철, 김영춘, 현철해, 장성우, 박재경, 리용무, 리명수, 백세봉, 오국렬, 김두남, 박기서 등이다. 이승열. 2009. pp. 161.

46) 군 경력을 세분화하면 인민무력부 출신 14명, 총참모부 출신 10명, 총정치국 출신 5명, 호위사령부 출신 4명 등이었다.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2007. “북한 파워그룹 대해부.” 『중앙일보』 (1월 4일).

로 급부상하였다.⁴⁷⁾ 인민보안성에는 인민군 대장 주상성이 2004년 인민보안상으로 부임하였고 인민보안성의 정치국장 지영춘도 인민군 총정치국 출신이다. 반면 선군정치 하 당 관료들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에서 김정일의 측근으로 활약하고 있는 인물들 중 정통 당 관료는 강동윤(조직지도부장), 김국태(당비서), 김기남(당비서), 김중린(당비서), 노배권(조직지도부 부부장), 이용철(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이재일(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김경옥(지방 담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장성택(당 행정부장), 최용해(황북도당 책임비서), 황병서(당 부부장), 최익규(선전선동부 부장)가 있다. 이들 가운데서 군 출신인 강동윤, 이용철, 황병서 등을 제외하면 새롭게 측근으로 기용된 당 관료는 김경옥과 노배권, 이재일 등에 불과하다. 김정일 시대 새로 측근에 기용된 당 관료들은 소수에 불과한 반면 상당수의 당 관료들이 측근 대열에서 사라졌는데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당 관료들이 아니라 대부분 군 출신 엘리트들이었던 것이다.⁴⁸⁾

현재 북한 권력의 중심에 있는 북한 군부의 파워 엘리트는 김정일 시대 뚜렷이 부상하며 주요 요직에 포진하였다. 당과의 비교에서 당 관료들이 위축된 반면 군 출신 인사가 북한 권력의 파워 엘리트로 성장하고 진출한 것이다. 향후 이들 파워 엘리트의 동향과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은 북한의 현황과 행동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7) 우동측이 급속도로 승진한 데는 현재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의 셋째 아들 김정은의 최측근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는 김정은이 2009년 보위부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설과도 관련된다. 정성장도 김정은 보위부장설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박성우. 2010. “김정은, 보위부장으로 활동.” 『자유아시아방송』 (1월 1일); 정성장. 2010. “‘공동 통치’ 발 맞추는 김정은과 장성택.” 『시사저널』 1078호 (6월 16일).

48) 이승열. 2009. pp. 162-163; 현성일. 2007. pp. 386-387.

V. 연구 결과의 의미 및 결론

북한 권력구도 내지는 권력 관계 혹은 권력 실세, 즉 파워 엘리트를 살펴 보는 데서 유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북한은 1인 통치자의 '절대' 권력이 통용되는 국가라는 것이다. '인민'의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으며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각종 억압 기제들과 숙청 및 노동 교화라는 '효과적이고' '빈번한' 방법을 동원, 권력의 도전과 인민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 체계는 물론이거니와 수령·당·대중의 3위일체 사상 및 유일사상10대원칙⁴⁹⁾이라는 본원적이고 초법적인 규정에 따라 수령은 가히 종교집단의 신과 같은 존재⁵⁰⁾로 추앙되고 받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황장엽은 이 같은 북한 사회 체제를 사회주의도 아니며 '봉건전제주의의 변종'으로서 오로지 독재만이 통용되는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라고 명명하였다.⁵¹⁾ 사실이 이러하다면, 실상 본 논문에서 취급하듯이 북한 군부의 위상 강화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며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봉착할 수 있다. 그것이 북한 내 권력관계 혹은 통치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로서의 의미를 갖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너무 크다는 데 문제가 있다. 결국 군부의 위상 강화도 김정일의 절대권력을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즉 선군정치 하 실제 군부의 위상이 올라가고 영향력이 증대했다고 본다면 그것은 다시 말해 김정일이 그만큼 군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

49) 유일사상10대원칙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우러러 모셔야 한다. 3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4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5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10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여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김정일, 1987,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p. 107-118.

50) 북한에서 '수령'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 전체의 의사와 교구의 체현자이며 그들의 이익의 최고 대표자이다. 김정일, 1882.

51) 황장엽, 1999,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 서울: 시대정신.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간의 선행연구에서 논란으로 삼았던 당·정·군 관계의 변화와 연속성에 관한 결론들은 각기 부분적인 타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권력 구조를 논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전제가 주요하게 고찰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 수령절대주의 체제의 성격이다. 즉 북한의 당·정·군 관계는 수령절대주의라는 대전제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이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 기인하는 전통적인 공산주의 체제 하에 있다고 전제할 때 당 우위는 근본적으로 ‘고정된’ 성격의 문제라는 점이다. 북한이 ‘이론적으로’ 당우위 공산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며 ‘제도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조건에서 전통적인 당우위 체제의 변화를 정의하기는 어렵다. 실제 제도상 북한에서 군은 당에 의해 변함없이 통제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황장엽은 북한의 당이 김정일의 독재 하에 북한 인민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음에 대해 자주 강조하곤 하였다.⁵²⁾ 즉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출발하였기에 이론과 제도에 있어 어디까지나 당이 근간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도 선군정치 하 분명한 군의 위상 강화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속성으로서의 당 중심 국가체제 혹은 ‘프롤레타리아 일당독재체제’⁵³⁾를 뛰어넘고 있음을 정의하지는 않는다. 보다 중요하게는 궁극적으로 김정일 1인을 중심으로 한 권력 체계라는 대전제를 대입한다면 군의 위상 강화가 당·군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논하는 것 역시도 많은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52) 필자는 수차례 황장엽을 면담하였으며, 황장엽은 이 같은 부분을 자주 피력하였다. 아울러 황장엽은 김정일이 군을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키웠으며, 급변 당대표자회 역시 당을 통해 군을 견제하고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고 설명하였다.

53) 프롤레타리아 일당독재는 사회주의 이론(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핵심으로서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사회주의의 과도기 단계에서 자본가 계급을 완전히 일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 외에도 사회주의 핵심이론에는 ‘계급투쟁론’, ‘역사발전5단계설’ 등이 있다.

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연구 결과의 '무게'는 분명히 있다. 김정일 독재체제 하에서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진행해 오는 동안 군부의 위상이 강화된 것은 분명함을 다각도로 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실증은 북한을 인식하며 북한 권력 구도 및 구조의 지속성과 변화를 판단하는 데 있어 충분히 유용한 잣대로 활용되고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선행연구의 주요 결론들에 비추어 본다면, 수령절대주의가 지속하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 하에 선군정치로 북한이 군사국가 체제가 됨으로써 군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되었으며, 기존의 당·정·군 관계가 적어도 '실효적' 면에서는, 당적 지도가 더욱 유명무실해지고 군의 파워가 당의 파워에 비등하거나 혹은 전자가 후자를 능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실증적 근거를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선군정치는 김정일이 처한 위기를 외부로 환원시키는 데 주효했다. 외부에 적이 있으며,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며, 군대를 강화하고 군을 앞세워서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한 김정일 정권의 체제 유지와 통치 유지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결국 선군정치는 군이라는 집단 내지는 당·군·정과 같은 권력 단위와의 관계에서보다 김정일 정권의 체제 유지라는 김정일 일인권력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외형적으로 군의 위상이 상승되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면서 김정일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선군정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군부를 자신의 주변으로 인입하고 편재하는 것은 응당 필요했을 것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조건에서 김정일의 선군정치 하 일정하게 군부의 위상은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김정일은 선군정치 하에서 당을 공허한 실체로 두고 군을 내세웠으며, 따라서 선군정치 하 북한을 군사국가, 병영국가 체제로 보는 것 역시 무리가 아닌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 김정일 체제하 당도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인 바 김정일은 당을 적절한 수준에 두면서 군을 앞세우고 때에 따라서는 군을 억누르며 당을 앞세우는 식의 정치를 펼 수도 있는 것이다. 황장엽은 따라서, 2009년 9월 북한이 무려 44년만에 개

최한 노동당 당대표자 회의와 관련, 김정은이 비대해진 군부의 권력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위해 당의 권한을 복권시켜 군부의 과대한 영향력을 견제하려 하는 김정일의 ‘노림수’라고 사전에 설명하기도 하였다.⁵⁴⁾ 당대표자회와 관련, 선군정치 하 군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면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 당의 위상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던지,⁵⁵⁾ 사회주의 원리상 군대가 너무 커져 당의 영도를 벗어나는 순간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고 볼 때 군만 비대해지고 당은 뼈거덕 거리게 된 현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⁵⁶⁾ 견해들은 역으로 선군정치 하 군부 위상의 강화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대표자회를 통해 북한이 당 우위 체제로 선회할 수 있으며, 그것 역시 결국 선군정치 하 비대해진 군부가 김정일 권력 혹은 김정은 권력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 유지와 보호의 방편으로 취해지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우선 당대표자회의 면면은 북한의 선군정치가 지속·강화될 것임을 보여주었다. 김정일은 자신의 후계자로 김정은을 내세우면서 ‘대장’ 칭호를 주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앉혔다. 당대표자회는 조선노동당 당규약을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30년 만에 개정하였다. 개정 당규약에서 선군정치, 군사중시기풍, 혁명적 군인정신, 선군혁명, 선군의 기치, 선군사상, 군사 기풍, 군민일치, 관병일치 등 선군정치를 대변하는 문구가 4조 3항, 4조 4항, 38조, 45조 8항, 46조, 48조 등에서 반복적으로 명시되고 있다.⁵⁷⁾ 김정은이 부위원장에 전격 임명된 “당중앙군사위원회는 …… 군사분야에 나서는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지도”(27조)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김정은이

54) 김용훈. 2010. “김정일, 군부의 김정은 위협 가능성 우려.” 『데일리엔케이』 (7월 14일).

55) 황주희. 2010. “NK비전 좌담, 대한민국은 김정은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NK VISION』 통권 17호 (8월 5일). 7월 21일 이루어진 위 기사의 대담에서 유호열의 견해.

56) 황주희. 2010. 같은 기사의 대담에서 현성일의 견해.

57) 김진하. 2011. “북한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의 정치 동학.” 『KINU현안분석 Online Series』 CO 11-08.

당기구를 통해 군권을 장악할 수 있는 당·군 장악의 기틀을 조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된다”(22조)고 명시함으로써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총비서를 승계하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당·군을 전부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김정일은 군을 앞세우는 선군정치를 통해 권력의 위기를 탈출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였으며 당시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다. 선군정치는 김정일의 통치 원칙이자 통치 방법이 되었으며,⁵⁸⁾ 강성대국론의 토대가 되고⁵⁹⁾ 혁명 주체에 군을 추가하였으며,⁶⁰⁾ 선군사상으로 이론화되어⁶¹⁾ 약 15년이 지난 2009년에 이르러 헌법상 주체사상과 동렬의 위치에 자리하게 되었다.⁶²⁾ 선군정치의 본질은 그것이 김정일 체제 보위의 수단이였다는 데 있으며, 군을 앞세우는 선군정치의 위상은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최상위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선군정치 하 북한 헌법의 변화에서 보이는 국방위원회의 강화, 북한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의 군부 인사의 비율 변화, 주석단 서열 변화, 김정일의 당·군 책임일꾼 회의 횟수 및 변화 양태, 김정일의 군 현지도도 비율, 김정일 현지도도 수행인물 순위, 김정일의 군 승진 인사 등의 지표를 통해 전체적인 군부의 위상 강화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요직을 차지한 북한의 핵심 군 파워 엘리트는 김정일 시대에 부상하여 권력의 실세로까지 자리잡았다. 무려 44년 만에 개최되어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세운 당대표자회는 북한의 선군정치가 지속·강화될

5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2006, 『우리당의 선군정치』,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p. 79-80; 오경섭, 2009.

59) 1998, 『로동신문』 (8월 22일).

60) 고초봉, 2003, 『선군시대 혁명의 주체』, 평양: 평양출판사, pp. 31-33; 조성박, 1999, 『세계를 매혹시키는 김정일 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pp. 94-95.

61) 정성임, 2009, “1998~2007년 『로동신문』 분석을 통해 본 북한의 선군정치 논리.” 『통일문제연구』, 2009년 하반기(통권 제52호), p. 251.

62) 2009북한헌법은 제3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적시하였다. 서론 참조.

것임을 보여주었다. 북한 군 파워 엘리트의 동향과 움직임이 향후 북한 행동과 현황 파악의 주요한 풍향계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역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고재홍. 2008. “북한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향후 북한의 권력구도 전망”. 『한반도, 전환기의 사색』. 2008년 북한연구학회 통일연구원 고려대북한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 고초봉. 2003. 『선군시대 혁명의 주체』. 평양: 평양출판사.
- 김갑식. 2005. 『김정일 정권의 권력 구조』.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 김구섭 · 서주석 · 고성윤. 1997. 『북한군부의 위상과 대내외 정책전망』. 서울: 국방연구원.
- 김근식. 2002.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 · 정 · 군 관계 변화-수령제 변화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2호(2002년 여름호).
- 김근식 · 이무철. 2007. “북한선군 정치와 강성대국론 - 자료 해제와 연구 동향 -”. 『통일문제연구』 2007년 하반기호(통권 제 48호).
- 김성철. 1997. “김정일 시대의 정책전망: 위기 속의 정치체제 변용과 전망.” 『통일경제』. 1997년 9월호
- _____. 1997.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 김용현. 2006. “한군사국가회의의 기원”. 북한연구학회 엮음. 『북한의 정치』 2(북한학총서). 서울: 경인문화사.
- 김정일. 1987.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진하. 2011. “북한조선로동당 규약 개정의 정치 동학.” 『KINU현안분석 Online Series』 CO 11-08.
- 밀스. 1979. 진덕규 역. 『파워엘리트』.
- 백승주. 2009. “주요 북한군부 엘리트의 집단별 특징 및 정치배경 분석”. 제3회 북한군사포럼 발표문.
- 백학순. 2007. “제 1장 당정군 관계”.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당 · 국가기구 · 군대』. 서울: 한올아카데미.
- 북한연구소. 2003. 『북한총람(1993-2002)』. 서울: 북한연구소.
- 사회과학출판사. 1992. 『조선말대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_____. 1992. 『조선말대사전(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서대숙. 2000. 『현대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 서동만. “북한 정치체제 변화에 관한 시론.” 한국정치학회. 『정치비평』 가을겨울호(1998).
- 오경섭. 2009. “북한의 위기관리동학에 관한 연구: 선군정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와다하루키. 2002.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 서동만 외 옮김. 서울: 돌베개.
- 이대근. 2003.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역할』. 서울: 한울.
- 이상민. 2000.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조선노동당의 위상”. 이상민 외. 『21세기의 남북한 정치-새로운 남북관계와 통일한국의 미래』. 서울: 한울.
- 이승열. 2009. 『김정일의 선택』. 서울: 시대정신.
- 이종석. 2000. “김정일 시대의 조선노동당: 위상·조직·기능.” 이종석·백학순. 『김정일 시대의 당과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백승주, 2001. “선군정치하 북한군 역할과 위상 변화”. 『국방정책연구』 2001년 겨울.
- 전현준. 2009.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통일정세분석』 2009-4.
- 정성임. 2004.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의 역할”, 『국방연구』 제47권 제1호, 2004년 6월.
- _____. 2009. “1998~2007년 『로동신문』 분석을 통해 본 북한의 선군정치 논리.” 『통일문제연구』. 2009년 하반기(통권 제52호).
- 정성장. “김정일의 ‘선군정치’: 논리와 정책적 함의”. 『현대북한연구』 제4권 2호(2001)
- _____. 200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선군정치’와 당·군 관계”. 『국가전략』 제 17권 3호.
- _____. 2003. “김정일 시대의 정치체제 특징 연구”(2003 정책연구과제). 통일부 정보분석국. 2003년 11월.
- 정영태. 2006.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서울: 통일연구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2006. 『우리당의 선군정치』.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1992년 발간본~2008년 발간본).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 조성박. 1999. 『세계를 매혹시키는 김정일 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 조준래. 2003. “「선군정치」와 북한군부의 영향력”. 『국방정책연구』 2003년 여름.
- 통일연구원. 2009. 『1994~2008 김정일 현지도 동향』. 서울: 통일연구원.

현성일. 2007.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황장엽. 1999. 『개인의 생명보다 귀중한 민족의 생명』. 서울: 시대정신.

Amos Perlmutter and William Leogrande. 1982. "The Party in Uniform: Toward a Theory of Civil-Military System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6(December 1982).

C. Wright Mills. 1956. *The Power Elite*,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로동신문』 (8월 22일).

김명국 · 정성장. 2008. "누가 북한을 움직이는가." 『시사저널』 992호 (10월 22일).

김성진. 2010. "北, 軍장성 100명 승진인사..97년 이후 최대." 『연합뉴스』 (4월 14일).

김용훈. 2010. "김정일, 군부의 김정은 위협 가능성 우려." 『데일리엔케이』 (7월 14일).

박성우. 2010. "김정은, 보위부장으로 활동." 『자유아시아방송』 (1월 1일).

정성장. 2010. "'공동 통치' 발 맞추는 김정은과 장성택." 『시사저널』 1078호 (6월 16일).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2007. "북한 파워그룹 대해부." 『중앙일보』 (1월 4일).

황주희. 2010. "NK비전 좌담, 대한민국은 김정은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NK VISION』 통권 17호 (8월 5일).

통일부. 『북한주요동향』.

NK조선 웹사이트. 『주석단서열』.

ABSTRACT

The study on Power of Military Elite in Military-first Politics of North Korea

Jong Chel Lee

North Korea promotes the military-first politics, called Songun Politics, as its national management system. Last 2009 April, North Korea presented the form that North Korean Songun Politics was strengthened more through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Since the mid-1990s, North Korea has opened and practised Songun Politics. During the military-first politics, what kind of change has been there to power of military elite? This paper checked that while Kim Jong-il has performed the military-first politics, what influence has been exerted on the change of the military elite's phase. And through that work, this paper examined whether the power of the military elite has been strengthened actually.

Key Words Military Elite Power, Military Power Elite, Military-first Politics, Military Phase, Party-Military Relation